

제4장 성 주 면

본래 남포군(藍浦郡) 북외면(北外面)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미산면에 속했었는데, 성주리 지역에 석탄 광산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1979년 7월 27일 미산면 성주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성주리와 개화리를 관할하였다. 1986년 4월 1일 성주면으로 승격되었다. 면사무소는 성주리 195-3번지에 있다.

- 북외면(北外面) : 옛 남포현의 동북부 지역. 현재 성주면 성주리, 개화리, 미산면 도화담리, 풍계리 지역이다.

1. 개화리(開花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북외면(北外面)의 지역으로 개화내라고 불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조계동(造溪洞)·상개리(上介里)·하개리(下介里)를 병합하여 개화리라 해서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1986년 4월 1일 성주면 승격과 함께 성주면에 속하게 되었다.

- 가야천리(可也川里) : 개화내의 옛 한자 표기.
- 갓골 : 개화내 개화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골짜기.
- 갓골 : 개화리의 남쪽 끝에 있는 은골의 최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 개굴 : 작은우리티골의 남쪽 부분.
- 개화1리 : 구사택, 새뜰, 조개골.
- 개화2리 : 음지뜸, 양지뜸, 벌뜰.
- 개화3리 : 위뜸, 은골, 구역말, 삼거리.
- 개화기도원 : 개화내 양지뜸 서쪽 함박굴 안에 있는 기도원.
- 개화내 : 개화리의 중앙에 있는 중심 마을. 개화초등학교가 있다.

- 개화목장 : 말재골 안에 있는 목장.
- 개화예술공원 : 개화리 읍달에 있는 예술공원이다. 미술관, 음악당, 허브랜드, 돌조각공원, 한국육필시공원, 민물고기관, 조류관, 참숯가마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 개화탄광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 안쪽에 있던 탄광.
- 개화항 : 으텡이골 안에 있던 신성 탄광의 갯 이름.
- 공동묘지 : 도투마리골과 지계골 사이의 평평한 산사면에 있다.
- 공원묘지 : 큰우리티재 북서쪽에 있는 모란공원의 옛 이름.
- 구사택 : 개화리 북쪽 하천변에 있는 마을. 광산박물관의 남쪽이며, 지계골에서는 보건너라고도 부른다.
- 구억말 : 도화담 삼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 구억말골 : 구억말 북쪽의 골짜기. 구억말에서는 뒷고랑이라고 부른다. 안에 산제당이 있다.
- 구억말앞들 : 하개 구억말과 사기점골 사이에 있는 들.
- 구징지매 : 지계골 마을 북쪽에 있는 낮은 산. 도투마리골과 과구날고랑 사이에 있다. 높이 184.6m이다.
- 긴개울고랑 : 말재골 안에서 서쪽으로 향한 긴 골짜기.
- 깊은골 : 지계골 안쪽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
- 피깎봉 : 개화리 도투마리골과 성주리 신사택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쇠머리재의 서쪽 봉우리이며 높이 350.5m이다.
- 끝망골 : 개화리의 남쪽 끝에 있는 은굴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갯골과 큰고래골 사이에 있다.
- 냉천 : 냉천의 다른 이름.
- 냉천 : 개화교(비끼내다리) 남쪽, 하천이 회전하는 곳에 있다. 바위 밑에서 찬물이 나오는데 초여름까지도 얼음이 있다고 한다.
- 냉천들 : 개화교 남서쪽에 있는 들.
- 너멍골 : 도화담삼거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조산의 동남쪽에 있다.
- 너병네들 : 지계골 마을 남서쪽 하천 동쪽에 있는 들. 개화정미소의 서쪽 들이다.
- 노신제당(路神際堂) : 산제당나무 남쪽 바로 옆에 있던 옛 제당. 지붕은 없고 돌로 담을 쌓아 놓았는데 1960년대에 마을 동쪽에 산제당을 짓고 없앴다.
- 노적봉 : 작은우리티골과 은굴 사이에 있는 뒷박산의 다른 이름.

- 농조보 : 개화리와 미산면 도화담리 사이의 개화교 북쪽에 있는 보. 원래 농지개량 조합에서 남포면으로 물을 돌리기 위하여 축조하였는데, 창동정수장에서 정수하여 대천 상수원으로 이용하다가 보령댐 건설 이후, 남포지역 농업용수로 이용한다.
- 누에대갈 : 으랭이골과 성주리 창터골 사이에 있는 자미혈의 동쪽 끝. 누에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대문바위 : 도화담삼거리 동쪽 산사면에 있는 바위.
- 대밑들 : 지계굴 마을 남쪽에 있는 들.
- 대보탄광 : 지계굴 마을 동쪽, 안골 안쪽에 있는 탄광.
- 대본항 : 개화내 양지뜸 서쪽 함박굴 안에 있던 석탄 광산.
- 도투마리골 : 지계굴 마을 서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옛날에는 집이 2가구 밖에 없었으나 광산 개발 후 많은 집이 들어서 있다.
- 도투마리안골 : 도투마리골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평탄하여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 도화담삼거리 : 개화리의 남쪽 마을. 성주리, 웅천읍, 도화담리 방향으로 통하는 삼거리이다. 40호 국도에서 606호 지방도가 갈라지는 곳이다.
- 동남방산제당 : 지계굴 마을의 남쪽에 있는 산제당이다. 지계굴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날 3곳(동남방, 마을 중앙, 산제당)에서 산제를 지내는데 이곳에서 맨 처음 지낸다. 아침 10시경에 동남방을 향해 상을 차려놓고 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으나 죽어 없어졌다고 한다.
- 동산 : 유통굴 마을과 함박굴 마을 사이에 있는 산. 옥마산의 남동쪽 봉우리이다. 높이 215.0m이다.
- 동향 : 석탄박물관 동쪽 내 건너에 있다. 광산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뒀양지 : 유통굴의 안쪽 큰병목안의 북쪽 경사면이다. 용못산의 남쪽 사면으로 경사가 급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석 광산이 있었다.
- 뒀박산 : 작은우리티굴과 은굴 사이에 있는 산. 요즈음은 노적봉이라고도 부른다.
- 뒀고랑 : 구억말의 북쪽 골짜기. 구억말골을 구억말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마치(馬峙) : 말재의 한자 표기.
- 마치하(馬峙下) : 말재밑의 한자 표기.
- 만수산 : 지계굴 마을 동쪽에 있는 산. 미산면과 부여군 외산면의 경계이다.
- 말재 : 말재골에서 남포면으로 통하는 고개이다. 과거에는 부여, 미산 쪽에서 남포면으로 통하는 큰 길이었다. 꼭대기에는 성황당이 있는데 신수는 느티나무이다.

- 말재골 : 개화리의 남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남포면과 통하는 말재의 밑이다.
골짜기의 입구는 좁고 안은 넓은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다.
- 말재밑 : 하개 마을의 다른 이름.
- 매불안산 : 작은우리티굴과 큰우리티굴 사이에 있는 산.
- 매생이바위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 안에 있는 바위. 사기장굴의 북쪽 산기슭에 있다.
- 모란공원 : 큰우리티재 북쪽에 있는 공원묘지이다. 1991년 착공하여 1994년 완공하였으며, 면적 174283㎡에 묘 3112기, 납골 2160기가 시설되어 있고, 부대시설로는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식당 등이 있다.
- 무량골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 안에 있는 골짜기. 용못골의 동북쪽에 있다. 무량사로 통하는 중재 밑에 있다.
- 묵밭 : 구억말 뒷고랑 안에 있는 밭. 밭이 경작되지 않아 붙여진 이름이다.
- 문수산 : 지계골과 성주리 화장골 사이에 있는 산. 높이 575.0m이다. 옛날 천지개벽 때 문짝만큼만 남았었다는 전설이 있다.
- 박숙들 : 개화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들. 큰보들과 방아보들 사이에 있다. 박숙뚝 주변에 있는 들이다.
- 박숙뚝 : 개화초등학교 남쪽 박숙들 안에 있는 작은 하천.
- 뱃너병네 : 지계골 마을 서쪽 개화정미소가 있던 곳. 이 정미소는 원래 물방앗간이었다.
- 방아들 : 웅천 도화담간 도로 북쪽에 있는 들. 옛날 이곳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 방아들보 : 개화내 개화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보. 방아들에 물을 댄다.
- 병목안 : 유통골의 안쪽을 통칭하는 말.
- 병목안고랑 : 으덩이골의 안쪽 골짜기. 좁은 목의 안쪽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보건너 : 광산박물관 남쪽 마을인 구사택의 다른 이름. 지계골 쪽에서 보아 새보의 건너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불탄고랑 : 말재골 안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의 가운데쯤에 있다.
- 비끼내 : 개화리와 미산면 도화담리 사이에 있는 개화교 근처의 하천을 부르는 이름. 남으로 흐르던 하천이 이곳에서 동으로 흘러(비껴흘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옛날 횡천소(橫川所)가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비석고랑 : 하개 위뜸에서 왕자봉으로 난 골짜기.
- 비치내 : 비끼내의 다른 이름. 옛날 성주사에서 쌀 씻은 뜨물이 이곳에까지 흘러와 비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 비끼내다리 : 개화리와 미산면 도화담리 사이에 있는 개화교의 다른 이름.
- 빙애길 : 지계골에서 문수산 남쪽 산허리로 통하는 길. 빙애는 벼랑이라는 뜻이다.
- 사기장골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좁은골의 서쪽이다. 도화담리 청석 채석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다.
- 사기점골 : 사기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안에는 대규모의 오석 광산이 있었다.
- 사기점골 : 하개 구억말 남쪽에 있는 마을.
- 사지번덕지 : 도화담삼거리 동북쪽에 있는 평평한 지형. 굽은 모래 자갈로 이루어져 밭으로 이용된다. 모래땅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산제당 : 구억말 뒷고랑의 산제당골에 있었다. 1960년대에 지어진 기와 1간의 당집과 당샘이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 정월 보름 안에 택일하여 제를 지냈으나 근래는 지내지 않는다. 신수(神樹)로는 큰 참나무가 있다. 1970년대 초 제를 지낸 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당집도 무너졌다.
- 산제당 : 지계골 마을 동쪽, 산제당고랑 기슭에 있다. 마을 안에 있던 노신제당을 헐고 1970년대에 지었다. 정월 보름날 지냈는데, 마을의 남쪽 소나무 있던 곳, 마을의 중앙 산제당나무에 이어 3번째로 지낸다.
- 산제당고랑 : 지계골 마을 동쪽 산제당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 안에 개인이 위하던 옛 산제당이 있었다. 당샘, 당집은 없고 신목인 오리목도 부러져 없어졌다고 한다.
- 산제당골 : 구억말 뒷고랑의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산제당나무 : 지계골 마을 가운데에 있는 참나무이다. 원래는 4개가 있었는데 모두 죽고 1개만 남아 있다. 마을 남쪽에서 동남방으로 제를 지낸 후 이곳에서 서북방으로 제를 지낸다.
- 산제당날 : 지계골 마을 동쪽 산제당 북쪽에 있는 산능선. 산제당고랑과 절터골 사이에 있다.
- 샷갓집 : 하개 위뜸 서쪽 말재골 입구에 있던 집. 옛날에 1채의 집이 있었고, 그 집을 부르던 이름이다.
- 상개(上開) : 개화리의 북쪽 부분. 개화 2구(上開, 下開) 중 1구.
- 상개리(上介里, 기화니) : 개화리 위뜸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새들 : 지계골의 서쪽 도투마리골과 너병네들 사이에 있는 들.
- 새보 : 구사택(보건너) 마을과 도투마리 마을 사이에 있는 보.

- 새점 : 유통굴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 옹기그릇을 굽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로 생긴 점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 새점동산 : 유통굴과 용못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용못산의 동남쪽 봉우리이다. 높이 216.0m이다.
- 서낭댕이 : 개화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다.
- 서낭댕이 : 지계굴 윗말, 마을 회관 북쪽 길가 돌무더기와 큰 아가배나무가 있던 곳이다. 개인들이 거리제와 서낭제를 지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없어졌다.
- 서낭댕이 : 큰우리티의 꼭대기에 있었다.
- 석탄박물관 : 으텡이골 입구에 있는 박물관이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수십 년간 번창하던 성주면 지역의 석탄 광산이 폐광되자 석탄 산업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5년에 건립하였다.
- 선바위 : 하개 사기점굴과 미산면 도화담리 경계 사이에 있는 바위. 큰 바위여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세월교 : 새점 마을과 음달 마을 사이에 있는 다리.
- 소금쟁이고개 : 말재골 안에서 웅천읍 수부리 단원사로 넘어가는 고개.
- 소도둑굴 : 도투마리골 마을 동북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골짜기가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소도둑굴 : 큰우리티골에서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
- 쇠메기재 : 도투마리골에서 성주리 화장골로 넘어가는 고개. 피깁봉의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 석겨굴 : 용못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술독바위 : 개화내 양지뜸 서쪽 함박골 입구에 있는 바위. 솥돌로 사용되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바위이다.
- 신성탄광 : 으텡이골 안에 있던 석탄 광산.
- 신성탄광 : 지계굴 마을 동쪽, 안골 안쪽에 있던 탄광.
- 신촌말 : 지계굴 마을 서쪽에 있는 너병네들의 북서쪽 하천 주변에 있는 마을.
- 아래뜸 : 도화담삼거리의 다른 이름. 위뜸과 비교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아래뜸 : 지계골 마을의 남서쪽 부분이다. 광산 개발 이후에 생긴 마을이다.
- 안골 : 지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지계골에서 부르는 이름. 다른 마을에서는 지계골이라고 부른다.
- 안장고개 : 개화리 남쪽 끝에 있는 은골에서 웅천읍 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말안장

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애장굴 : 개화내 위뜸 북쪽에 난 골짜기. 비석고랑의 서쪽 왕자봉의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양아절터 : 지계굴 마을 동쪽, 안골 끝에 있던 절터. 현재도 대나무가 있다고 한다.
- 양지뜸 : 개화내 마을의 동산 남쪽 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 여수굴 : 지계굴 마을 북쪽 구정지매 북쪽에 있는 바위 굴. 여수번데기의 북쪽이다.
- 여수번데기 : 지계굴 마을 북쪽 구정지매 북쪽에 있는 평평한 지형. 밭, 과수원으로 이용된다.
- 오산 : 개화내 양지뜸 서남쪽에 있는 산. 함박굴과 북적굴 사이에 있다. 오씨네 소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높이 154.5m이다.
- 옥동고랑 : 유통굴 동쪽에 있는 큰수리점굴의 다른 이름. 석탄광인 옥동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옥마산 : 개화리 서쪽에 있는 성주산의 한 봉우리. 높이 600.8m이다.
- 왕자봉(王字峰) : 구역말과 말재굴 사이에 있는 산. 산봉우리 부분이 왕자(王字)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 253.4m이다. 삼각점이 있다.
- 용못 : 지계굴 마을 동쪽, 안골 안에 있는 웅덩이. 돌에 구멍이 뚫려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용못 : 지계굴 마을 동쪽, 도로가에 있던 웅덩이이다. 기우제를 지내는 등 마을의 신성한 장소로 보존되다가 최근 메워졌다.
- 용못골 : 지계굴 마을 동쪽, 안골 안에 있는 웅덩이인 용못 동쪽에 있는 골짜기. 피앗골과 무량골 사이에 있다.
- 용못들 : 용못과 새집 마을 사이에 있는 들.
- 용못산 : 옥마봉과 용못 사이에 있는 봉우리. 높이 463.9m이다.
- 용수세미굴 : 지계굴 마을 동쪽, 안골 끝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용수세미재를 통하여 무량사로 내려간다.
- 용수세미재 : 지계굴 마을 동쪽, 안골 안쪽 끝에서 동쪽으로 난 용수세미굴 위에 있는 재. 무량사로 통한다.
- 우치(牛峙) : 우리티재의 한자 표기.
- 위뜸 : 개화내 마을 북쪽에 있는 유통굴과 새집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 위뜸 : 지계굴 마을의 동쪽 부분. 예부터 있던 마을이다.
- 위뜸 : 하개 구역말 서쪽 도로변에 있는 마을.

- 유통굴 : 새집과 개화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
- 유통굴 : 유통굴 마을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골짜기의 입구는 좁고 안은 넓다.
- 으텡이골 : 개화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옥마산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입구에 석탄박물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있다.
- 은굴 : 하개 위뜸 남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 작은우리티골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을 칭하기도 한다.
- 음달 : 유통굴 마을 동쪽 하천 건너에 있는 마을.
- 음달들 : 음달 마을 남쪽에 있는 들.
- 음달보 : 큰다리와 세월교 사이에 있는 보.
- 자미혈 : 개화리 북쪽에 옥마봉에서 내민 산능선. 으텡이골과 성주리 창터골 사이에 있다.
- 작은고래굴 : 개화리의 남쪽 끝에 있는 은굴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호짜굴과 큰고래굴 사이에 있다.
- 작은병목안 : 개화내 양지뜸 서쪽 함박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함박굴의 동쪽에 있다.
- 작은병목안 : 유통굴의 안쪽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함박굴로 통하는 길이 있다.
- 작은수리점골 : 지계골과 큰수리점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작은우리티 : 작은우리티골에서 웅천읍 평리로 통하는 고개.
- 작은우리티골 : 하개 위뜸 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 우리티로 통한다.
- 장군바위 : 개화내 양지뜸 서쪽 함박굴 안에 있는 바위. 개화기도원 뒤쪽에 있다.
- 장사보 : 유통굴 마을 동쪽에 있는 보. 세월교와 큰보 사이에 있다.
- 장사보들 : 유통굴 마을과 개화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들.
- 장승백이 : 구억말과 하개 위뜸 사이의 산 밑 도로변이다. 1950년대까지 장승 2개가 서 있었고 옆에 성황당도 있었다.
- 장승백이들 : 하개 위뜸과 구억말 사이에 있는 들.
- 전차항굴 : 으텡이골 입구의 북쪽 부분에 있는 터널이다. 성주 지역에 석탄 산업이 번창할 때 성주의 석탄을 옥마역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터널을 만들었다. 완공 직후부터 경제성이 맞지 않아 이용되지 않았다. 최근 관광용으로 개발 계획 중이다.
- 절터 : 개화내 양지뜸 서쪽 함박굴 안에 있는 절터골의 해발 200여 m에 위치해 있다.
- 절터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 북쪽에 있는 절터골 위에 있다.
- 절터골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산제당골의 동쪽에 있다.

골짜기의 위쪽에 절터가 있다.

- 절터굴 : 개화내 양지뜸 서쪽에 있는, 함박굴의 안쪽에서 서남쪽으로 난 골짜기. 골짜기 안에 옛 절터가 있다.
- 정사바위 : 구사택(보건너) 마을 버스정류장 맞은쪽에 있는 큰 바위.
- 정자나무 : 개화내 양지뜸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 도로에 돌출해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어 양쪽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 조개골 : 지계골의 다른 이름.
- 조계곡(造溪谷) : 지계골의 한자 표기.
- 조계동(造溪洞) : 지계골의 옛 한자 표기.
- 조산 : 구억말 서북쪽에 있는 산. 조씨네 소유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좁은골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사기장골과 피앗골 사이에 있다.
- 중개(中開) : 개화리 중앙에 있는 마을.
- 중개 : 개화내 마을을 중심으로한 주변을 통칭하는 말이다.
- 중재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 안 무량골과 부여군 외산면 무량사 사이에 있는 고개. 높이 450.4m이다.
- 작은피앗골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에서 남동쪽으로 난 피앗골의 동쪽 부분.
- 지계골 : 개화리의 동북쪽에 있는 마을. 석탄 광산 개발 이전부터 있던 큰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정월 보름날 낮에 3곳에서 산제를 지낸다. 제일 먼저 마을의 남쪽 옛 소나무 있던 곳에서 동남방을 향해 지내고, 다음에는 마을 가운데에 있는 참나무에서 서북방을 향해 제를 지내며, 마지막으로 마을 동쪽에 있는 산제당에서 제를 지낸다. 1960년대 에는 마을 가운데의 산제당나무 옆에 돌담으로 쌓은 노신제당(路神際堂)이 있어서 지냈는데,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 마을 동쪽에 산제당을 짓고 없었다고 한다. 정월 초사흘에 당주를 뽑고 걸립을 시작하여 7일까지 술을 빚어 넣는다. 마을 대동에서 술을 만드는 것은 일제시대에도 막지 못했다고 한다. 당주의 집에는 금(禁)자가 씌어진 깃발을 꽂아 부정을 막는다.
- 지계골 : 지계골 마을 동쪽의 큰 골짜기. 지계골 마을에서는 안골이라고도 부른다.
- 채초장 : 지계골 마을 남쪽에 있는 산사면. 지계골과 작은수리점골 사이의 산사면이다.
- 청석모랭이 : 도화담삼거리와 구억말 사이에 있는 산줄기의 끝.
- 초군산 : 말재골 안 개화목장 초지이다. 원래 일본인 소유였던 것을 남포 읍내리 동유림으로 하였는데 개인이 매입했다고 전한다.

- 춘향이골 : 용못과 신촌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 용못산의 서쪽 골짜기이다.
- 칼바위 : 지계골 남동쪽에 내민 산줄기의 끝에 있는 바위.
- 큰고래굴 : 개화리의 남쪽 끝에 있는 은굴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끝망굴과 작은고래굴 사이에 있다.
- 큰다리 : 지계골 입구에 있는 다리. 1995년 8월 수해로 교각이 내려앉았다.
- 큰병목안 : 개화내 양지뜸 서쪽 함박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굴과 작은 함박굴 사이에 있다.
- 큰병목안 : 유통굴의 안쪽에 있는 넓은 완경사지. 옥마산의 남서쪽이다.
- 큰보 : 개화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보.
- 큰보들 : 개화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들.
- 큰수리점골 : 유통굴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갯골과 작은수리점골 사이에 있다. 옥동고랑이라고도 부른다.
- 큰우리티골 : 개화리에서 웅천읍 수부리로 통하는 큰우리티 북쪽의 골짜기. 606호 지방도가 통한다.
- 큰우리티재 : 개화리에서 웅천읍 수부리로 통하는 재. 606호 지방도가 통한다.
- 턱굴 : 작은우리티골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논으로 개간되었다.
- 토끼정굴 : 구역말 뒷고랑의 꼭대기 부분을 일컫는 지명.
- 파구날고랑 : 지계골 윗말 북쪽의 골짜기. 구정지매와 산제당고랑 사이에 있다.
- 평풍바위 : 도화담삼거리 동쪽 산사면에 있는 바위.
- 피앗골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에서 남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 좁은골과 용못골 사이에 있다. 큰피앗골과 작은피앗골로 나누어진다.
- 피앗골말랭이 : 지계골 마을 동쪽 안골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인 피앗골(큰피앗골)의 동쪽에 있는 산능선. 외산면과의 경계이며 무량사 여승당으로 통한다.
- 하개(下開) : 개화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 개화 2구(上開, 下開) 중 1구.
- 하개(下介) : 개화리의 남쪽 부분.
- 하개리(下介里, 기화니) : 개화내의 아래뜸 <1911, 朝鮮地誌資料>
- 하루재 : 구역말 뒷고랑의 토끼정굴에서 말재골로 이어지는 재. 이 길을 따라 방화선이 나 있다.
- 함박굴 : 개화내 양지뜸 서쪽 골짜기 안의 마을. 1979년 수재민을 위한 집단 취락이 들어서 있으나, 석탄합리화 조치로 탄광이 폐광되어 거의 비어 있는 촌락이다.
- 함박굴 : 개화내 양지뜸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 골짜기의 입구는 좁고 안이 넓다.

- 호랭이성국 : 작은우리티 위쪽 개굴과 큰우리티 사이에 있는 산. 풍수상 붙여진 이름이다.
- 홋작굴 : 개화리의 남쪽 끝에 있는 은굴에서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 작은고래굴과 사기점굴 사이에 있다.
- 화개(花開) : 개화리의 한자 표기.
- 횡천(橫川, 비기니) : 비끼내. <1911, 朝鮮地誌資料>



구역말 산제당(1996)



지계굴 방앗간(1996)

2. 성주리(聖住里)

본래 남포군 북외면(北外面) 지역으로서 성주산(聖住山) 밑이 되므로 성주골 또는 성주동(聖住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주리라 하여 보령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86년 4월 1일 성주면의 승격과 함께 성주면에 속하게 되었다. 광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60여 세대에 불과했었는데 광산개발 때문에 수백 세대로 증가되었다가 폐광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 가새골 : 심연동 동남쪽 상안이골 안에 있는 골짜기. 두껍재골과 원무골 사이에 있다. 조루봉의 서남쪽이다. 원풍탄광이 있어서 원풍골이라고도 부른다.
- 갓복사나무골 : 심연동의 동북쪽에서 조루봉 쪽으로 난 세 번째 골짜기. 가운데 복사나무골의 동쪽이다.
- 개용못 : 창터골 마을 남쪽에 있는 하천. 하천이 90도로 꺾어지는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깊은 못을 이루었다.
- 구메바위골 : 심연동 마을 남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 족지골과 양낭골 사이에 있다.

- 구질 : 개화리에서 창터굴 안쪽을 지나 바래기재로 통하는 길. 옛날에 이용하던 길이다.
- 피갈뫼 : 화장골의 입구에 있는 마을. 광산을 개발하기 전에는 집이 1가구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 피갈밑들 : 신사택 남쪽에 있는 들. 개용못의 동쪽이다.
- 피갈봉 : 성주리 신사택과 개화리 지계굴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350.5m이다.
- 냇티 : 먹뱅이 마을 북쪽 골짜기의 동쪽 사면. 화왕봉의 서쪽 사면이다.
- 노가지골 : 바래기재 입구에서 서북쪽으로 난 골짜기. 한재골의 서쪽이다. 안에 덕흥 마을이 있다.
- 누에대갈 : 창터굴과 으챙이굴 사이에 있는 산능선의 동쪽 끝. 자미혈의 동쪽 끝이다.
- 대저골 : 성주초등학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왕재봉의 동남쪽 골짜기이다.
- 덕흥 : 노가지골 안에 있는 마을. 덕흥광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도랑골 : 도랑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도랑굴 : 별뜸의 남쪽, 속빨 동쪽에 있는 마을.
- 도투마리골 : 화장골 안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쇠메기재를 통하여 개화리 지계굴과 통한다.
- 독구데기굴 : 창터굴의 다른 이름.
- 독지팽이 : 성주사지 동남쪽 모서리 부분이다. 수로 밑에 묻혀 있는 당간지주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두껍재골 : 심연동 동남쪽 상안이골의 입구에서 동북쪽으로 난 골짜기. 조루봉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두두굴 : 성주초등학교 남쪽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 두멍골 : 백운사 서쪽에 있는 골짜기. 화왕봉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두아장굴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안에 있는 골짜기. 원무굴의 맞은쪽에 있다. 삼밭재와 큰지픈골 사이에 있다.
- 떡갈번덕지 : 먹뱅이골 안쪽에 있는 산능선. 흥바위골과 유봉골 사이에 있다.
- 말봉 : 심연동 마을과 먹방골 사이에 있는 산. 높이 612.9m이다.
- 먹방 : 먹뱅이의 한자식 표기.
- 먹방삼거리 : 성주사지의 동북쪽에 있는 삼거리. 먹방 백운사 방향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이다.
- 먹뱅이 : 먹방삼거리 서북쪽에 있는 큰 마을. 옛날에는 먹뱅이 번덕지라고 불리고 가옥이 없었으나 광산 개발 후 가옥이 밀집되었다.

- 먹뱅이골 : 먹뱅이 마을 안쪽에 있는 큰 골짜기.
- 먹뱅이번덕지 : 먹방삼거리 서북쪽의 평평한 곳을 옛날에 부르던 이름.
- 모이골 : 벌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조정승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무량재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안쪽 끝에서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로 넘어가는 고개. 무량사 태조암으로 통한다.
- 무량재골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안의 골짜기. 안상안이골의 동쪽이다.
- 무량재골 : 화장골 안에서 동남쪽으로 향한 골짜기. 무량사 태조암으로 통한다.
- 묵방 : 먹뱅이의 한자식 표기.
- 문봉(文峰) : 심연동 동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장군봉의 동쪽이며 청라면, 성주면, 부여군 외산면의 경계이다. 높이 632.5m이다.
- 문수산 : 성주리 화장골과 개화리 지계골 사이에 있는 산. 높이 575.0m이다. 옛날 천지개벽 때 모두 물에 잠기고 이 산 꼭대기에만 문짝만큼 남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물당골 : 심연동 동북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장군봉의 바로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오석 광산이 있다.
- 바라니지 : 바래기재. <1911, 朝鮮地誌資料>
- 바래기재 : 성주리에서 동대동, 명천동으로 통하는 고개. 옛날에는 성주 사람들이 대천으로 시장보러 다녔고, 대천 사람들이 성주로 먼산나무 하러 다니던 고개이다. 고개 밑으로 성주터널이 나 있다.
- 바래기재골 : 바래기재로 통하는 골짜기. 성주터널로 통하는 큰 골짜기이다.
- 바루백이 : 먹방골 안쪽 끝에서 장군봉으로 향한 골짜기. 똑바로 난 골짜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바른골 : 상수리재골과 직선으로 통하는 골짜기. 골짜기의 가운데에 빈대절터가 있다.
- 백운사 : 수원터 위에 있는 절이다. 옛날에는 송암사로 불렀다가 백운사로 개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광산 개발로 물이 나오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최근 개축하였다. 백운사 남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백운사향 : 백운사 남쪽, 두멍골 남쪽에 있던 광산. 백운사 남쪽에 있고, 갯도가 경사져 붙여진 이름이다. 백운사갱(白雲斜坑)이라고 해야 하는데 통상 ‘백운사향’으로 불렸다. 주변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백재 : 뱀재의 다른 이름.
- 뱀재 : 성주리 먹방 마을에서 청라 향천리로 넘어가는 고개.

- 밭지 : 뱀재 <1911, 朝鮮地誌資料>
- 뱀재골 : 먹뱅이 마을 서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뱀재를 통하여 청라면 향천리로 통한다.
- 벌뜸 : 성주초등학교 남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 성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고 광산 개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마을이다.
- 범턱거리 : 뽕쪽바위의 다른 이름. 이 바위 위에 호랑이가 자주 앉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 어느 마을 사람이 저녁에 이곳을 지나다 바위 위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 앉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복사나무골 : 심연동의 동북쪽에서 조루봉 쪽으로 난 골짜기. 첫복사나무골, 가운데 복사나무골, 갓복사나무골을 통칭하는 말이다.
- 부두골 : 성주초등학교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 마을에서 대낭혜화상 무염국사의 부도 잔해가 발견되었다.
- 비듬재 : 먹뱅이골 안의 유봉골과 청라면 향천리를 연결하는 재.
- 빈대절터 : 상수리재골 안 바른골에 있는 절터.
- 뽕쪽바위 : 신촌말 마을 남쪽 하천 옆에 있는 바위. 뽕쪽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근래 넘어뜨렸다고 한다. 범턱거리라고도 부른다.
- 산제당 : 먹뱅이 마을 동쪽 개울가에 있다. 옛날에는 벌뜸에 있는 산제당에서 제를 지냈으나 광산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자 분리하여 따로 지낸다. 정월 초이렛날 지낸다.
- 산제당 : 성주사지 동남쪽 산제당골의 개울가에 슬레이트 1칸의 산제당이 있다. 대들보의 상량문에 의하면 光緒六年(1880)에 건립되었다.
아주 옛날부터 벌뜸, 먹뱅이, 심연동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제를 지냈었으나, 근래에는 먹뱅이와 성주삼거리에서는 따로 지내고 벌뜸과 심연동 주민들이 제를 지낸다.
제일은 정월 초아흐레이며 정월 초사흘에 건립을 하고 당주를 뽑아 제를 준비한다.
- 산제당 : 성주과출소 서쪽 산기슭에 있다. 성주삼거리 중뜸 주민들이 정월 열나흘 밤에 제를 지낸다. 원래는 벌뜸과 함께 제를 지냈으나 1960년대에 분리하였다.
- 산제당골 : 성주사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의 아래쪽에는 아주 옛날부터 먹방, 벌뜸, 심연동 등 성주리 사람들이 함께 지내던 산제당이 있다.
- 삼밭재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안쪽 끝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신선봉의 동쪽에 있다. 안상안이골과 두아장골 사이에 있다.
- 삼불봉 : 성주삼거리와 화장골 사이에 있는 산 능선의 동쪽 끝에 있는 봉우리. 중이 피갈을 쓰고 춤추는 형국이라고 한다.

- 상보 : 떡방삼거리의 백운사 쪽 하천에 있는 보.
- 상보들 : 벌뜸 마을 북쪽에 있는 들.
- 상수리재 : 심연동에서 부여군 외산면 수신리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높이는 429.9m이다. 옛날에는 성주리에 방앗간이 없어 심연동 사람들이 재를 넘어다니며 방아를 짰었다고 전한다.
- 상수리재골 : 심연동의 동북쪽으로 난 큰 골짜기. 부여군 외산면으로 통하는 상수리재로 오르는 골짜기이다. 안에 수리재골, 바른골, 심적골이 있다. 가물어도 많은 물이 흘러 성주면의 상수원으로 이용된다.
- 상안이골 : 심원동 동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 근래 화장골과 통하는 도로가 개통되었다.
- 상촌 : 성주사지 북쪽에 있는 마을.
- 생여날 : 물탕골과 수리재골 사이에 있는 산줄기. 장군봉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이다.
- 생여바위골 : 신촌말 동쪽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적시골과 죽지골 사이에 있다.
- 서낭탱이 : 상수리재 꼭대기에 있다. 신수로는 느티나무가 있다. 돌무더기는 도로 확장으로 없어졌다. 주로 부여군 외산면 사람들이 이용하던 성황당이다.
- 서낭탱이 : 성주삼거리 동북쪽 길가에 있었다. 도로 확장으로 없어졌다.
- 서낭탱이 : 심연동 마을 동북쪽 첫복사나무골 입구에 있는 성황당이다. 신수로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으나 죽어 없어졌다.
- 서낭탱이 : 심연동 마을 북쪽, 큰선바위골의 남쪽에 있는 성황당이다.
- 선바위골 : 심연동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말봉의 동남쪽이다.
- 성림사택 : 떡방삼거리 동쪽에 있는 마을. 성림탄광의 사택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1979년 수재민 사택이다. 수재민사택이라고도 부른다.
- 성주1리 : 상안이골, 심원동, 신촌.
- 성주2리 : 수원터, 백운동.
- 성주3리 : 떡방.
- 성주4리 : 장군리.
- 성주5리 : 탑동, 양지뜸, 속뜸, 벌뜸.
- 성주6리 : 옥카브, 삼거리, 바래기골.
- 성주7리 : 중뜸, 창터골.
- 성주8리 : 신사택.

- 성주사지 : 성주초등학교와 먹방삼거리 사이에 있는 옛 절터이다. 백제 시대에 오합사가 있었고, 신라시대에 무염국사가 이곳에 정착하여 선종 9산 중 하나인 성주산문을 일으켰던 곳이다. 절터 안에는 국보 8호인 대남혜화상백월보광탑비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 성주산 : 성주면 서쪽과 북쪽을 둘러싼 높은 산지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옥마봉, 문봉, 왕재봉, 장군봉 등 여러 봉우리가 있다.
- 성주삼거리 : 성주리의 중심 마을이다. 먹방·백운사, 대천, 도화담으로 통하는 삼거리로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등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고 다방,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이 들어서 있다. 최근에 아파트도 들어서 있다.
- 소도독굴 : 뱀재골 안쪽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 속뜸 : 성주초등학교 동쪽 도로변에 있는 마을.
- 속빨 : 벌뜸 남쪽에 있는 들. 하천의 동쪽이다.
- 쇠메기재 : 화장골 도투마리골에서 개화리 지계골로 통하는 재.
- 수랑치기 : 신촌말 근처의 하천을 부르는 이름. 하천이 직각으로 꺾어져 흐르며, 하천의 공격사면에 뾰족한 바위가 있다. 좁은 목에 해당되어 바람이 강하다.
- 수리재 : 상수리재골 북쪽의 수리재골을 통하여 청라면 라원리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 488.0m이다.
- 수리재골 : 상수리재골 안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위에 청라면 라원리로 통하는 수리재가 있다.
- 수원터 : 백운사 남쪽을 지칭하는 말.
- 수재민사택 : 성림사택의 다른 이름. 1979년 수재로 지어진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수청바위골 : 화장골 안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도투마리골의 동쪽이다.
- 숭암사 : 백운사의 옛 이름.
- 시민동 : 심연동의 다른 이름.
- 시영뱃이재 : 백운사 마을에서 삼불봉으로 오르는 재.
- 시영목이 : 신촌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시영목이재를 통하여 화장골로 통한다.
- 시영목이재 : 신촌말과 화장골 사이에 있는 재.
- 시영목이재골 : 화장골 안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시영목이재를 통하여 백운사 근처 신촌말과 통한다.
- 신사택 : 성주삼거리 남쪽 하천의 동쪽에 있는 마을. 석탄공사의 사택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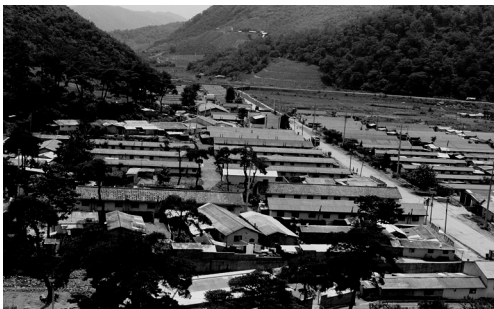
- 신촌 : 신촌말의 다른 이름.
- 신촌말 : 백운사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 심연동 : 성주리의 동쪽, 상수리골과 상안이골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마을. 두 하천이 합쳐지는 곳으로 주변에서 가장 넓은 평탄지가 있다. 광산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성주리의 동쪽 끝에 있던 마을이다.
- 심원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안에 있는 마을. 이곳에 있던 심원 탄광에서 생긴 이름이다. 광산이 폐광된 후 식당 마을로 변화였다.
- 심원동 : 심연동의 다른 이름.
- 심적골 : 상수리재골 안에서 남동쪽으로 난 큰 골짜기. 조루봉의 북쪽에 난 골짜기이다.
- 안상안이골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끝에 있는 골짜기.
- 양낭골 : 심연동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작은지픈골과 구메바위골 사이에 있다.
- 양지뜸 : 성주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마을.
- 양지족 : 화장골의 북쪽 산사면. 경사가 급하다.
- 양지편들 : 성주초등학교와 성주사지 사이에 있는 들.
- 오바위골 : 먹방골 안쪽 끝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 오카브 : 바래기재골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바래기재로 통하는 도로의 커브가 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왕묘 : 성주초등학교 서북쪽에 있는, 대저골 가운데에 있는 묘이다. 현재는 광산 폐석으로 덮여 있다. 성주 주민들은 왕묘라고 부른 기억이 없다고 하며, 대천에서 먼산나무 다니던 사람들이 왕묘라고 불렀다고 한다.
- 왕자봉 : 왕재봉의 다른 이름.
- 왕재봉 : 성주초등학교 서북쪽에 있는 봉우리. 청라면과 화산동, 성주면의 경계를 이루는 515.0m의 봉우리와 이 봉우리 동쪽의 494.7m, 515.8m 봉우리가 마치 王자 모양을 이루어 붙여진 이름이다.
- 용못들 : 성주삼거리 동쪽에 있는 들. 면사무소가 들어서 있다.
- 원두박골 : 말봉의 다른 이름.
- 원무골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안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가새골과 재수굿재 사이에 있다. 조루봉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원풍골 : 가새골의 다른 이름.
- 유봉골 : 먹뱅이골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청라면과 통하는 비듬재의 남쪽

이다. 청라면 향천리 유봉으로 통하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유산 : 먹방 마을 동쪽에 있는 산. 백운사 북쪽, 화왕봉의 서남쪽 능선이다. 유씨네 소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자미혈 : 창터굴과 으뎡이굴 사이에 있는 산능선.
- 작은선바위골 : 심연동 서북쪽에 있는 첫 번째 골짜기.
- 작은장구맥이 : 먹뱅이골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큰장구맥이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지픈골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입구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 큰지픈골과 양낭골 사이에 있다.
- 작은행팽이골 : 먹뱅이골 안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차돌백이 음산과 큰행팽이골 사이에 있다.
- 장군리 : 먹방 남쪽에 있는 마을. 광산개발로 생긴 마을이다. 장군봉에서 따 붙인 이름이다.
- 장군봉 : 먹뱅이골과 물탕골의 위쪽에 있는 성주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성주면과 청라면의 경계이다. 높이 680.1m이며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물탕골과 먹뱅이골 양쪽에 오석을 채취하던 대규모 채석장이 있다.
- 재수굿재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안에 있는 골짜기. 무량재와 원무굴 사이에 있다.
- 적시골 : 신촌말 동쪽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시영목과 생여바위골 사이에 있다.
- 절터 : 중상골의 북쪽 8부 능선에 있는 옛 절터이다. 기왓장이 출토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신하대 나무가 자란다.
- 정충묘 : 부두굴과 대저굴 사이의 산능선에 있는 큰 묘. 정씨네 묘라고 전하는 큰 묘이다. 비석이나 상석은 없고 봉분만 크게 있다. 묘 마당에 작은 묘 2기가 들어서 있다.
- 조금내 : 화장골에서 흘러오는 내.
- 조정승묘 : 별뫼 마을 동쪽 도랑골과 모이골 사이의 능선에 있다.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풍양조씨 趙顯命의 묘이다.
- 족지골 : 심연동 마을 남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난 골짜기. 구메바위골과 족지골 사이에 있다.
- 족지골번덕지 : 구메바위골과 생여바위골 사이의 족지골 입구 평평한 지형.
- 중뫼 : 성주삼거리와 창터굴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 중보 : 성주사지와 성주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보.

- 중보들 : 벌뜸 남쪽에 있는 들. 성주초등학교와 성주사지 사이의 중보에서 물을 낸다.
- 중상골 : 백운사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식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대저굴 : 성주사지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대저굴의 동쪽에 있다.
- 작은뱀재 : 뱀재골에서 똑바로 오르는 고개. 청라면 향천리 임척굴로 통한다. 높이 345.5m이다.
- 지식구데기 : 중상골의 다른 이름.
- 지식재 : 심연동과 먹방 사이에 있는 말봉의 다른 이름.
- 진난봉 : 먹뱅이 마을 북쪽, 뱀재골과 작은장구매이 사이에 있는 봉우리.
- 질대보 : 먹방삼거리에서 먹방쪽으로 난 내에 있는 보. 뱀재골과 먹방골이 합해지는 곳 아래에 있다.
- 차돌백이음산 : 먹뱅이골 안에 있는 동쪽 산사면. 화왕봉의 서쪽 사면이다.
- 창터굴 : 성주삼거리 남쪽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
- 창터굴 : 성주삼거리 남쪽에서 서쪽으로 뻗은 큰 골짜기. 독구데기굴이라고도 부른다.
- 창터굴번덕지 : 창터굴 마을과 중뜸 사이에 있는 들.
- 창터굴보 : 성주삼거리의 서남쪽 청룡뿌리 끝에 있는 보.
- 첫복사나무골 : 심연동의 동북쪽에서 조루봉 쪽으로 난 가운데 골짜기. 첫복사나무골과 가운데복사나무골 사이에 있다.
- 청룡뿌리 : 화장골번덕지와 성주삼거리 사이에 내민 칼날 같은 산줄기.
- 칠성봉 : 성주삼거리와 화장골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봉우리가 7개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큰뱀재 : 뱀재골 안에서 청라면 향천리 분향어로 넘어가는 고개. 큰뱀재골의 북쪽에 있다. 높이 311.0m이다.
- 큰뱀재골 : 뱀재골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큰뱀재로 통한다.
- 큰선바위골 : 심연동 서북쪽에 있는 두 번째 골짜기. 작은선바위골의 동쪽이다.
- 큰장구매이 : 먹뱅이골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유봉골과 작은장구매이 사이에 있다.
- 큰지픈골 : 심연동 마을 동남쪽, 상안이골 안에 남서쪽으로 난 골짜기. 작은지픈골과 두아장골 사이에 있다.
- 큰행팽이골 : 먹뱅이골 안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작은행팽이골과 오바위골 사이에 있다.
- 탑동네 : 성주사지 동쪽에 있는 마을. 성주사지의 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퇴끼바위 : 성림사택에 있던 바위이다. 성림사택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 퇴끼바위골 : 성림사택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한재골 : 성주삼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최근에 광주안씨 집안의 묘지와 임란공신을 추모하는 비가 들어섰다.
- 행팽이골 : 떡뱅이골 안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 큰행팽이골과 작은행팽이골로 나누어진다.
- 홀태골 : 성주 삼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성주삼거리와 부두골 사이에 있다.
- 흙바위골 : 떡뱅이골 안쪽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
- 화약골 : 한재골의 다른 이름. 광산에서 사용하던 화약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화왕봉 : 떡뱅이골과 백운사 사이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 508.7m이다.
- 화장골 : 성주삼거리 동쪽에 난 큰 골짜기. 경치가 아름답고 여름에 시원하여 유원지로 개발되었다.
- 화장골번덕지 : 화장골 입구의 평평한 지형.
- 회다리 : 백운사 남쪽에 있는 백운사 마을의 다른 이름. 일제시대에 시멘트 다리가 건설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후등골 : 중상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신사택(1991)



백운사(1993)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박성익(59)	미산면	개화리	39	1리	임인순(61)	미산면	개화리	522	삼거리
박성기(63)	미산면	개화리	43	1리	복진욱(68)	성주면	성주리	149	5리
안득원(73)	미산면	개화리	335	개화내	임철규(68)	성주면	성주리	130-2	5리
박성협(64)	미산면	개화리	325	개화내	이희봉(65)	성주면	성주리	134-2	5리
임필재(56)	미산면	개화리	551	삼거리	김춘환(55)	성주면	성주리	39	심연동